



# 영국의 전자담배 사용자에 대한 차등요율 논의

안소영 연구원

영약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전자담배는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국가별 규제에 차이가 있음.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부족하고 전자담배 사용자를 흡연자나 비흡연자와 명확히 구별하는 방법이 없어서 보험회사가 전자담배 사용자에 대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기 어려웠음. 최근 영국 보험 업계는 전자담배 흡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전자담배는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국가별 규제에 차이가 있음

- (부정적 입장)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전자담배의 비타민E아세테이트와 THC 성분이 폐손상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함<sup>1)</sup>
  -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전자담배 유해성을 지적하며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sup>2)</sup>,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미국 최초로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 금지함<sup>3)</sup>
- (긍정적 입장) 영국 공중보건국(PHE)에서는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적절히 통제하면 일반담배보다 95% 가량 적은 유해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sup>4)</sup>, 전자담배를 흡연의 대체 상품으로서 공중보건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sup>5)</sup>
  - 영국 공중보건국(PHE)은 미국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는 비타민E아세테이트, THC 성분이 영국 전자담배 제조에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전자담배 폐 질환 발병 증가 사례는 미국 정부의 관리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함<sup>6)</sup>

1) CDC(2019), "Outbreak of Lung Injury Associated with the Use of E-Cigarette, or Vaping, Products"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10. 2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3) BBC News(2019), "San Francisco becomes first US city to ban e-cigarettes"  
 4) PHE(2015), "E-cigarettes: an evidence update A report commissioned by Public Health England"  
 5) Public Health England(2019), "Vaping and lung disease in the US: PHE's advice"  
 6) PHE(2019). "Vaping in England: evidence update summary February 2019"

- 우리나라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sup>7)</sup>, 전자담배와 중증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규명 되기 전까지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sup>8)</sup>
-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부족하고 전자담배 사용자를 흡연자나 비흡연자와 명확히 구별하는 방법이 없어서 보험회사가 전자담배 사용자에 대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기 어려웠음<sup>9)</sup>
  -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흡연자와 동일한 보험료로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sup>10)</sup>
  - 영국 계리인회(IFOA)<sup>11)</sup>는 언더라이터를 상대로 전자담배 사용자의 보험료 산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음
    -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전자담배 사용자를 심사할 때, 흡연자와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응답이 68%,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Non-smokers with a rating) 9%, 비흡연자 9% (Non-smokers without a rating), 기타가 15%를 차지함(〈그림 1〉 참조)

〈그림 1〉 언더라이터 설문 조사: 전자담배 사용자 언더라이팅 기준



자료: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2017), "E-cigarette - good or bad for your health?"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10. 2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9. 20),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9)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2017), “E-cigarette - good or bad for your health?”  
 10) <https://lifeinsuranceforsmokers.com/e-cigs-smokers-rates-not/>  
 11)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가 2016년 1년 간 총 2번(1차 응답자 수: 19, 2차 응답자 수: 34)에 걸쳐 영국과 아일랜드 언더라이터를 상대로 설문조사함

■ 최근 영국 보험업계는 전자담배 사용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차등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음<sup>12)</sup>

- 영국 보험업계는 소변검사 또는 혈액검사 등을 통해 흡연자, 흡연 경험이 있는 자, 전자담배 사용자를 구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 현재 영국 보험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코티닌 테스트에서 양성판단이 나온 경우 일반담배로 인한 것인지 전자담배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 담배, 무연담배, 전자담배 이용자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구별이 가능함
- Lorkiewicz et al.(2019)에 따르면 니코틴 수준은 간헐적 전자담배 이용자, 무연담배 이용자가 흡연자보다 2배 낮았으며, 코티닌과 3-히드록시코티닌은 모든 그룹에서 유사했음<sup>13)</sup>
  - 전자담배 이용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기준치보다 자일렌, 시안화물, 스티렌, 에틸벤젠 및 벤젠의 비노 대사물 수치가 높았음
  - 흡연자의 아크로레인, 크로톤알데하이드, 1,3-부타디엔의 대사산물은 무연담배, 전자담배 사용자, 비흡연자보다 유의하게(significantly) 높았음 **kiri**

12)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2017), "E-cigarette - good or bad for your health?"

13) Lorkiewicz, P., Riggs, D.W., Keith, R.J., Conklin, D.J., Xie, Z., Sutaria, S., Lynch, B., Srivastava, S. and Bhatnagar, A.(2019), "Comparison of urinary biomarkers of exposure in humans using electronic cigarettes, combustible cigarettes, and smokeless tobacco", *Nicotine & Tobacco Research*: 총 48명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VOCs, 니코틴, 담배 알칼로이드의 비노기 대사물을 측정하기 위해 3시간 동안 5개의 소변을 기준으로 채취함